

정유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原油의 延支給수입(유전스) 기간을 지난 1월부터 종전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데 이어 오는 4월부터 다시 60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올상반기중 4천5백60억원, 연말까지는 모두 8천9백억원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안게 되었으니 정유업계 자금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

8천9백억원이라는 정유업계 자금부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난 1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原油 유전스수입기간의 30일 단축으로 약 2천2백80억원의 자금부족이 발생된다. 추가하여 오는 4월1일부터 유전

정유업계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스수입기간이 다시 60일로 단축됨에 따라 약 2천2백80억원의 자금부담이 재차 발생되어 결국 유전스수입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부족은 올 상반기중 총 4천5백60억원에 이르게 된다.

둘째, 지난 1월1일부터 原油 및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15%에서 24.5%로 인상되고, 석유사업기금이 그 해당액만큼 인하됨에 따라 기금납부기일의 61일 조정효과가 잠식되어 3백40억원의 자금부족이 가중된다.

셋째, 原油 수입시 징구하는 10%의 수입보증금제도의 유예시한이 오는 3월말로 끝나는 경우, 약 8백40억원의 추가자금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넷째, 지난해 精油社의 자금부족 해소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산업은행 외화표시 자금 융자기한이 오는 7월로 끝남에 따라 총 1천2백80억원의 상환자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섯째, 지난해의 국제원유가격 하락과 관세 및 석유사업기금 조정과정에서 야기된 자금부족요인중 약 2천7백억원이 올해로 이월·징수됨에 따라 자금부족이 가중된다.

이와같은 요인에 따라 올해 정유업계의 자금부족규모는 총 9천7백억원에 달하며, 금년도중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7달러 수준으로 상승될 경우의 자금창출효과 약 8백억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자금부족은 총 8천9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정유업계의 분석이다.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유전스 輸入期間 변동내역

(單位: 日)

75. 2	77. 9	77. 11	77. 12	79. 8	79. 12	83. 5	83. 12	87. 1	87. 4
180	150	120	90	120	180	150	120	90	60

원유의 유전스수입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될당 시만 해도 정유업계는 엄청난 자금부족을 내세워 120일로 환원시켜줄 것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또다시 원유의 유전스수입기간을 60일로 단축키로 결정함으로써 정유업계는 흑을 하나 더 붙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정유업계에 엄청난 자금부담을 안겨주는 일련의 조치는 최근 국제수지흑자의 확대가 가져온 明暗의 한 단면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무려 46억 5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중의 경상수지흑자폭은 6억 2천만달러로 나타났다. 한 달의 흑자규모가 이정도 라면 연간 70~80억달러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수지의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의 경우,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은 3천71억원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민간부

문에서 작년과 같은 6조 2천억원이 공급되고, 정부신용과 기타부문에서도 전년수준인 3천억원이 공급된다고 전제할 때, 올해의 총 통화증가는 모두 10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증가액 5조 3천억원의 2배 수준이며, 이같은 가정을 전제로 할 때, 올해 총통화증가율은 무려 31.5%에 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정부가 강력한 통화환수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다.

통화당국은 최근 총화 증가예상액중 4조원을 억제, 총통화증가율을 올해 목표치인 18%내에서 억제키로 하고 각종 통화환수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통화안정증권등 통화조절용 채권을 발행, 2조 5천억

원을 흡수하고, 무역금융지원에서 단기무역신용대상 축소로 5천억원, 原油 등 무역신용기간의 단축으로 2천억원, 무역금융 융자단기인하로 2천억원등 모두 9천억원의 통화증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부문에서는 신규차관도입억제와 외채조기상환등을 통해 6천억원을 흡수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결국 원유유전스기간의 잇따른 단축은 해외부문의 통화환수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실물경제의 실체와 현실을 고려했다기 보다 통화의 量的 목표관리에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

다.

정유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으로서 최근의 국제수지개선에 따른 통화공급증대의 효과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 반면,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기업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타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또 대외채무의 축소라는 정책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유산업의 총외채는 지난 1985년 말의 21억 달러에서 1986년말 현재

13억달러로 감소되었으며, 단기외채는 이 기간중 19억 달러에서 11억달러로 감축되어 정유업계는 국제원유가격 하락의 기회를 이용한 低價도입과 적정재고유지 등으로 부채감축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외채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바야흐로 국내정유산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유업계 자금부족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석유수요의 안정공급의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정유산업은 존재의 위기에 처할 우려마저 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